

벵쿠버 선한 목자 교회

2018 03 06



평신도 후기

사실 저는 저희 새벽기도회에서 시작한 사복음서 통독의 시간 전 부터 통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끌어 주신다고 해서 반가웠지만, 시작 바로 전에 신약 통독을 끝내고 구약 통독을 하는 중이어서 조금 버거운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금방 사라지고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며 기도 응답해주시는 기쁨도 주셨지만 저의 믿음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단련시키시기 위해 고난도 함께주실 때 힘든 상황을 그냥 울며 힘들다고 낙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하라는 싸인을 주신다는 마음 주신것도 감사했습니다.

1 년 전부터 시작한 통독의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하지 않고 음악처럼 듣기부터 시작하며 매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더니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려웠던 큐티도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고 말씀에 눈 먼 저를 눈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교회 안에서 고요한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한없이 약한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모릅니다.

모든것이 시작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 뭔가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 한것 같구요. 하지만 같이하면 서로 의지 하며 힘이 되는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듯 분명 주위에 손 내밀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을 꺼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손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은혜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 받고 말씀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막 11: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곽규미 집사

목회자 후기

먼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신 한인사역부에 감사인사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시해 주신 순서를 따르되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1. 찬송가 한 장을 부른 다음, 시편 1 편을 읽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2. 당일 복음서 분량 중에서 15 분까지만 낭독을 듣고, 남은 분량을 집에서 읽어 오게 했습니다.
3. 그날 말씀 중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1. 새벽기도 준비 시간이 필요없어서 책을 읽는 시간을 늘였습니다.
2. 드라마 바이블 낭독 속도가 느린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수준 높은 낭송으로 인해 귀에 쏙쏙 들어 왔습니다.
3. 말씀 낭독을 들으며,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었고, 꽤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3 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함께 눈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4. 다음에도 순서표를 만들어 주시면, 꼭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권영만 목사